

같은 요리라도 만드는 사람에 따라 레시피가 다르듯 용도와 제조사에 따라 들어가는 첨가제의 종류와 양이 달라

박지형

나는 우연히 미세플라스틱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보고, 우리의 몸과 식생활을 보이지 않게 위협하는 플라스틱 문제에 관해 관심이 있었다. 그러던 차에 마침 녹색연합에서 플라스틱에 관한 네 가지 주제로 강연을 해서 플라스틱 문제에 대해 폭넓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강의를 신청하게 되었다. 그중 두 번째 강의인 홍수열 소장님의 강의를 SNS에서 자주 뵈 분이라 조금 더 관심이 갔다. 주제는 ‘석유화학 산업의 현황과 재활용에 대한 이해’였는데 과연 별명이 ‘쓰레기 박사’이신 만큼 강의를 자세해서 플라스틱이 무엇으로부터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부터 시작해서 활용 현장의 한계까지 자세하게 알 수 있었다.

만화 ‘오 나의 여신님’에 나오는 여신들은 원자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능력이 있어서, 원자를 재배치하여 마음에 드는 옷으로 순식간에 변신해 바뀌입는다. 나는 미세플라스틱과 고래의 배 속으로 들어가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1인 분량이라도 줄여보려고 길을 다닐 때 페트병을 주워 수퍼빈 재활용 기계에 넣는다. 줍다 보면 원자를 움직이는 초능력자들을 쓰레기 선별장에 한 명씩 배치하여 1초 만에 쓰레기들을 유용한 고순도의 자원으로 분류시키는 상상을 하게 된다. 현실에서는 플라스틱을 고품질로 업사이클링을 하려면 애초에 생산단계에서 플라스틱이 동일하게 순수해야 하지만, 같은 요리라도 만드는 사람에 따라 레시피가 다르듯 플라스틱도 용도와 제조사에 따라 들어가는 첨가제의 종류와 양이 모두 달라 이것들이 재활용을 위해 모이더라도 저품질의 재활용으로밖에 활용할 수 없는 것이다. 다 같은 소재인 것 같았던 투명한 페트도 병페트와 판페트는 들어있는 첨가제가 다르다.

1강에서는 생수 페트병은 생수 페트병으로만 재활용하는 순환구조의 재활용 방법이 언급되었다. 이번 2강에서는 정부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수준의 재활용을 할

건지 장기적인 전망으로 계획을 세워 기업들이 통일된 고순도의 플라스틱을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단계에서부터 재질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셨다. 거기에 더해 ‘바이오’라고 불리는 플라스틱들의 미묘한 다른 점들에 대해서도 배웠다. 재활용은 이미 사후의 문제로, 재활용으로 전체 플라스틱이 가져오는 환경 문제들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시민과 기업, 국가가 다 같이 중요성을 공감하고 재활용 구조를 개선해서 플라스틱이 재활용 시장의 황금사과가 되었으면 좋겠다.